

반딧불이 문학교실 「초등」 산문 3~4월 심사평

1. 산문 심사평

코로나로 인해 겨울방학이 유난히도 길었습니다. 자칫 일상의 균형이 깨어져 흐트러질 수 있는 기간에도 글쓰기 활동을 성실하게 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.

<마스크 사러 간 날>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. 약국마다 마스크 수량이 정해져 있는 탓에 줄을 서서 기다려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던 당시의 상황을 '친구 것을 사지 못했다'라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 표현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.

<아빠와 함께>는 백두산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입니다.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잘 간추리고, 영화에 대한 감상을 잘 적었습니다. '아빠와 함께'라는 제목에 걸맞게 아빠와 함께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 것에 대한 설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훨씬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.


<친구들과 진보에서 노는 날>은 친구들과 함께 한 설렘과 즐거움이 묻어나는 글입니다. 시간의 흐름에 맞게 여정, 견문, 감상이 실감 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친구와 나는 대화문이 있어서 글에 생동감이 느껴지지만, 대화문의 양을 조금 줄이고 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.

<우리집 코코>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소개하는 글로 고양이의 품종, 생김새, 나이, 성격, 특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. 글을 읽는 내내 코코가 눈앞에서 이불을 차고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.

<광복 후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의지>는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정리한 글로 독재정권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한 국민들의 노력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. '우리나라 국민의 열띤 저항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. 지금 이 시기도 국민의 힘으로 다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다'는 문장이 인상 깊습니다.

글을 쓰는 주제와 내용이 일치할수록 좋은 글입니다. 글을 다 쓴 후에 주제와 맞지 않는 군더더기는 없는지,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좋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

2. 운영위원 확인

순번	학교명	성명	서명
1	일월초	김재연	
2	수비초	이성일	
3	석보초	이아름	